

오전(1부, 노랑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5월 21일 (제120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럼

## 무리하지 말자

꿈을 꾸었다. 내가 장로들과 골프를 하는데, 18홀을 다 돌고 나니 장로들이 '18홀 더 할까요?' 한다. 무리네 하면서도 장로들 재촉에 따라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장로들은 "목사님, 얼른 오세요."라며 재촉을 하건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점차 쳐질 수밖에. 꿈을 깬 나는 생각이 깊었고, '무리하지 말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리는 자살이다'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내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나는 늘 어미의 심정으로 '짓꼭지가 헤어도 내 젖을 빨아라.'라고 했고, 아버지 마음으로 '자식을 많이 둔 아버지는 아플 틈도 없다'며 나는 늘 예외로 단정하고 지냈다. 그러나 나라고 세월을 거스를 수 있을까. 잠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는 내게 '고령자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고, 하나님은 이번엔 꿈으로 내게 경고하셨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나를 무시하는 법. 어느 때 같은 산상집회에서 아침저녁 설교를 했을 터이나, 이번에는 저녁에만 예배를 인도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다.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를 뛰는 것이 인생이다. 100m나 200m 선수들은 초반부터 최고의 스피드로 달린다. 잠깐이니까 가능하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들을 보라. 그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체력을 안배하면서 달린다. 오버 페이스를 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결국 끝까지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다. 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지만, 관리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기름치고, 닦고, 조여주면 차 수명이 길어지지만, 방치해두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조기 폐차를 면할 수 없다.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나 관리는 내가 해야 한다. 쉬 때 쉬고, 잘 때 자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무리하지 않게 관리해야 주신 수명대로 살 수 있다. 목회 초, 나는 딱 3년만 살다 가려고 했다. 당연히 엄청나게 무리했다. 그것이 열심이요, 충성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달았다. 주신 수명을 다 쓰지 못하고 빨리 가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께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가야 할 길이 바빠도,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면 조기 폐차된다.

#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세계 경제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세계 변환의 시기에 우리 정부의 지혜롭고 발 빠른 대처로 다가올 위기를 기회 삼아 이 나라가 더욱 발전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목사님은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다. 우리가 2013년부터 11차례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하며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

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과 6·25전쟁을 지나며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이지만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어디에 있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읽어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는 사람으로서 여야 불문하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성장 발전해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가 없는데 여야가 무슨 소용이고, 노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는 예수의 말씀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구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권력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일개 대기업의 나라도 아닙니



우리는 11차례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2014 서울시청 평화통일 기도성회 광경)

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일체의 희망을 앗아가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며 많은 나라들을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국가의 중요성입니다. 국가가 없는 민족은 국가가 있는 개만큼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실상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안보가 없는 경제는 사상누각입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면 당장 우리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반세기 동안 쌓아온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100년을 키운 나무도 잘라버리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

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미중 간의 패권 갈등과 맞물리며 세계를 양진영으로 쪼갤 세우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 및 나토와 러시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신(新)냉전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그 양진영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언제나 열강의 전쟁터로 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로 결속해야 한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2:1~2). 이 말씀은 항상 유효하다. 믿는 자의 자세는 항구여일해야 한다. 이 정부가 맘에 들면 기도하고, 저 정부가 맘에 안 들면 말씀을 무시하고 핏대를 올리며 비판을 일삼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목사님은 현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다.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여야를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국가가 없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지 잘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 이초석 목사 대구 엑스코 집회

6월 6일 오후 3시 (엑스코 동관 4홀) 문의 02. 533. 9191, 053. 552. 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17~31)



#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알라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神)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 사슬에 얽매여 사는 우리가 눈에 밝혀 건져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셨고, 때가 되때 입양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절차는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땅에 보내사 죽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1:12~13).

###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막 14:36)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확실하게 증거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4:6). 우리를 당신의 호적에 올리고 도장을 '팽' 찍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족보에서 우리를 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8:15).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는 말씀이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를 때 쭈뼛대며 '아~ 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듯, 우리도 하나님께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는 것을 아십니까? 양자도 자식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롬8:17). 후사(後嗣)가 됩니까? 대(代)를 잇는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 자식에게 상속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써놨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 (갈4:7).

여러분, 빌 게이츠의 상속자만 되어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니다. 이 건 회 회장의 상속자만 되어도 대단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상속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무이하신 분이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상속자라니... 까무러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실패하며 사느냐 이겁니다. 그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의사의 딸이 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언젠가 그 딸이 전화를 걸어 안부인사도 없이, "아빠, 등록금 보내주세요. 바빠서 끊을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꼭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 해도 어찌겠어요? 줘야죠. 아버지인데요."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신 하나님도 "달라고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나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7:7~11).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다면 돈 달라, 직장 달라, 병 고쳐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땀 흘려서 보

세 요. 본 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소심한 성격 탓일까요? 아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롬8:16).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아버지'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능이 따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1:8).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에 따르는 권세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16:17~18). 그래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무릎 꿇은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도 동일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그 관계가 끊어질까요?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위협은 해도 진정 관계를 청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질지? 아들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여전히 아들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와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해결해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양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아버지 같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잘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나?' 그런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떨어진 탓이요, 이는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양자로 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자 "제가 언제 아버지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저를 온전히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은 연고요, 믿지 못한 연고입니다.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라

자고로 대를 이어 자식은 곱게 키우지 않는 법입니다. 잘못된 것은 야단치고, 훈련도 시켜야지요. 때리면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12:6~7). 아버지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되라고 때리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살전5:19)고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양자의 자리도 놓치게 되고, 자녀의 권세도, 상속도 무산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걸랑, 힘들거들랑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줍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 찬양과 경배 ::

#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비친 모습은 대체로 보기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끼리가 아니고 남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 불신자들이 보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들 전체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들도 있지만, 개인 각자 비치는 모습들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사무엘상 29장에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 블레셋 왕이 그동안 돌봐주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함께 나가길 원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극구 반대하여 아가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는 장면이다. 아가스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을 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노라”(삼상29:6),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삼상29:9). 이방 나라의 왕에게 비친 다윗의 모습이다. ‘너는 정직하고 악이 없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일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이방인의 눈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비쳤다는 것이 참 멋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계시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이방인들 사

이에서 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이 아내 매장할 땅을 좀 사고 싶다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 에브론이라는 이웃 땅 주인이, “내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창23:11)라고 했고, 15절에는 땅값마저도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나 아브라함이 극구 땅값을 치르고 구매하여 장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비친 모습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어디든지 그냥 쓰라고 내어줄 정도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내 주변에 비치는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혹시 고르반 되었다(내 인생 하나님께 드렸다)고 전혀 남을 돌보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가정의 달을 맞아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To Be Succeeded ::

#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3:14).

이 말씀을 직접 체감한 일이 있다. 누군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언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누가 옳고 그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잠들기 전 회개기도를 했다. “하나님, 다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날 밤 꿈에 총회장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뭐가 좋은 거라고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데, 나를 보니 손톱에 작은 점 두 개가 찍혀 있었다. 천만다행인 것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시 그 점을 쓱쓱 문질러 지워버린 것이다.

꿈에서 깬 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앓고 일어섬과 중심의 생각까지 전부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며, 또한 진실로 죄를 회개하면 즉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만일 회개치 않고 그냥 잠들었다면, 그리고 그날 밤에 나를 불러가셨더라면 어떻게 되

었을까? 목사님께서 왜 날마다 일기를 써라, 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기도를 하고 잠들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믿는 자녀들이 행동할 법과 기준은 나의 지식,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비록 마음이 풀어오를지라도 용서하고, 그가 잘못했는지라도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용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죄를 통해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끝내 사명을 이루셨을진대 하물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견고한 발사대이며, 나아가 죄악과 싸워 승리하여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여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자!

이국진 사모

# 동행해주시는 주님

이른 아침 우연히 하늘을 올려보니 새벽하늘의 빛깔이 황홀했다. 혼자 보기 아까운 고운 색채들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뭇잎이 투명하게 밝은 것이 맑게 싱그럽다.

어느새 5월이 찾아왔다. 초록빛이 진하게 물들어진 계절이다. 화사한 5월, 햇살도 좀 더 진한 날, 간식을 챙겨서 가까운 자연으로 나가 몸도 마음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기분 좋게 밀려온다.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만 같은 5월은 그래서 참 사랑스럽다. 하늘을 보아도 예쁘다. 출퇴근 길에 늘 보는 같은 길, 늘 드나드는 같은 건물, 그러나 그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특별하게 느껴지는 5월이다.

사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큰 고민들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봄의 시간을 마주하며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기분이 좋다.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것들이 내 눈에 아름답고, 감사했던 것은 계절 속 자연을 보며 위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덕분이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일별하는 찰나에도 기쁨을 주시며, 밝은 생각들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자연도 때를 맞춰 기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홀로 두시겠느냐는 위로가 내게 있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늘 함께하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1:4)

이인영 집사



:: 오늘의 메시지 ::

# 응답받는 법

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때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았다.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으나 꿈속에서조차 편치 못했다. 약 육 개월 정도 눈물의 기도로 받은 응답은 ‘너부터 용서하라’였다. 당장 닦쳐있는 건 디기 힘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주시기를 그렇게도 간구했는데 왜 그 같은 응답만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섭섭하고 허탈했다.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너부터 용서하라’는 응답 즉시 용서를 시작하면 내 기도가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고통이 더했을 뿐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으니.

내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내게 죄지는 자를 용서하여 나의 죄를 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한다(마6:12).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 서원하여 즉시 응답받았다(삼상

1:10~11). 이스라엘을 이끌 선지자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 의를 구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모두 아시고 더하여 주실 터이니, 항상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왜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할까? 내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사함 받아야 응답하시니 너부터 용서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간구하고 인내하라. 죄 사함 받고 주께로 가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

“여호와와 손을 짚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59:1~2).

이광주 목사

:: 주님을 향하여 ::

:: 참된 깨달음 ::

# 중보기도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재미가 제법 붙을 무렵,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것은 '이웃을 위한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닿고 있는 것인가?'였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물었다. 어찌하여야 주님의 기도를 닿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그런 내게 답을 주시듯 한 꿈을 꾸게 하였다. 꿈속에서 나는 끈고 길게 뻗은 자갈길을 걷고 있었다. 등 뒤에는 빈 수레를 끌고 있었고, 터덜거리며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주님께 물었다. "주님,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 질문에 대한 내 답이란 다." 하였다.

인자하신 목소리로 주님께서는 내가 끌고

있던 빈 수레를 가리키시며, 앞으로 이 수레에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타게 될 거라고 하셨다. 이 수레에 누가 탈 것인가는 수레를 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타기를 원하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설령 자갈길을 지나느라 흙먼지를 마셔야 하고 덜그럭거리는 수레로 인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감내할 거라 하셨다. 그런 깊은 신뢰를 얻게 된다면, 그이웃을 위해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닿아 있을 거라고 하셨다. 하니 먼저 이웃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수레에 사랑받는 이를 태우고 그를 위해 자갈길을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마음이라 하셨고, 어찌하면 수레에 태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레를 끄는 일은 너

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하셨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믿어주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며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고 하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사람도 유익하지만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을 얻는다. 타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까. 꿈에서 깨어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러한 세세한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6).

**박영임 생도**  
jjambballqueen@naver.com

##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우리 부부는 결혼생활 17년 차이이고, 매주 가정예배를 드린 지 10년 정도가 되었다. 첫째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3명이 드리던 가정예배는 2명의 자녀가 더해져 5명이 드리고 있다. 지난 몇 년의 가정예배 기도 노트를 넘겨 보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푹푹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들이 아팠으나 치료를 받았고, 주차가 힘든 동네에서 소망하던 집으로 이사를 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을 기도로 굴복시켰고, 경제적인 문제도 때에 맞게 해결되었다. 당시엔 심각한 문제라 잠도 못 이루고 염려하며 기도했던 일들이었다. 지금도 매주 가정예배엔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응답받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걸 확신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염려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매주 아이들과 서로의 염려와 걱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자녀를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동지로 생각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그 가정은 무엇보다도 강한 '영적 공동체'가 된다.

가정의 달 5월, 가정예배를 시작해볼 것을 추천한다. 자주 드리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한 주에 한 번도 좋고, 더하여 특별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드려도 좋다. 특히 사진이나 메모를 통해 기록을 남기면 후에 가정예배를 통해 받은 응답과 축복을 알게 되어 가정예배의 맛을 알게 된다. 시작이 어렵지 한번 정하고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5-7). **송명국 집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

## Good News

장례예배나 혼인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데도 예배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혼인예배 때는 들뜬 마음으로 설교를 건성으로 들읍니다.

그러나 장례예배 때는 숙연한 모습으로 귀를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신하에게 이렇게 외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이 시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목이 달아날 불경죄이지만 왕은 아침마다 그 말을 듣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의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알렉산더 왕은 죽은 뒤에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허송세월하지 말고 보람 있게

살라는 교훈을 남겨주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믿지 않아서 영벌의 불지옥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후를 준비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

# RESTART REBECCA!

'RESTART REBECCA(다시 시작 레베카)! 지구 탈출의 힘으로!' 이 문구는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적혀 있습니다. 레베카는 딸아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운영 중인 해외 유학 관련업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문을 닫고 폐업했던 이 업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상에 열려있던 저의 블로그 때문입니다. 휴업을 선언하고 종료했지만, 오래전 작성했던 자료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다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일을 시작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그러하지만, 이면에 가려진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

한 망막의 이상과 녹내장으로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난 3월, 3년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들어서서 순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보여야 일을 하지요. 티켓의 좌석도, 출구 게이트도 인식할 수 없는 장님이 무슨 해외 출장을 가고, 국제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비척거리며 광경을 지켜본 남편의 한마디는, "월드비즈니스 커리어를 갖고 살아가 쉬운 줄 알아?" 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남편의 한마디가 오기를 발동시켰고, 살아계신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이방의 땅을 향하여 죽을 만큼의 인내와 노력으로, 지구 탈출을 시도하

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살이가 가끔 끝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 내밀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도, 다시 의지의 날개에 시동을 걸 수 있음도 우승자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배움의 터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덕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꼭 교회의 앞마당이 보이는 곳에서 강인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맛있는 한 끼 밥상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광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눈물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